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9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23일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광주, 원스톱 응급의료 구축…환자 '뺑뺑이' 없앤다

21개 응급실 하나의 병원처럼 관리 '원스톱 의료 플랫폼' 가동 환자 정보 네트워크로 실시간 공유…처치→이송→치료 한번에

광주시가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단일 네트 워크로 묶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가 ^{도하다}

병상·수술방·전문의 가용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환자를 타 병원으로 옮기는 시간을 줄이고, 응급환 자 '뺑뺑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생명이 위 급한 환자들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새로운 의료체계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플랫폼은 광주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병원처럼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응급 환자를 타병원으로 보낼 때 전화·팩스 중심 전달 방식을 실시간·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병원간 협력을 지원한다.

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은 이러한 구조적 유인을 줄이기 위해 전원 요청부터 수락·거절, 사유, 영상· 대화 기록을 남겨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했다. 특정병원에서 병원 사정상 최종치료가 어렵 다고 판단, 책임 논란을 우려해 환자수용을 거절하 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광주지역 모든 응급실 의료진 이 환자 정보와 의료자원(의사·간호사·의료장비) 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 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구축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 정책의 핵심 사업 중하나다. 기관 중심에서 기능·역할 중심으로 공공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중증·응급의료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골자는 전원(병원 간 이송) 자동화다. 1차 처치 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영상·검사 결과를 플랫폼에 올리면, 수신 병원은 수술 가능 여부와 자원 현황을 즉시 회신한다.

병상·수술실·전문의가 동시에 잡히면 곧바로 최 종치료로 이어지도록 표준 절차를 고도화했다.

광주 응급의료지원단 김동기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1개 응급실을 하나의 병원처럼 가동해불필요한 재이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전남대·조선대)과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서광·광주기독·첨단종합·KS병원)을 포함한 총 21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별 응급실 병상은 전남대 39병상, 조선대 32 병상 등 모두 345병상으로 집계됐다. 전원 요청·수 락 이력과 거절 사유를 남기는 기능을 탑재해 책임 공백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QI)에 활용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NHN 클라우드에 탑재 하고 전원 채팅·영상은 24시간 후 자동 삭제한다.

의료진과 119 연동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 재 소방청 운영 시스템과 기술 연계를 협의 중이 며, 당장은 병원 간 전원 고도화에 집중해 환자 이 송 흐름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은 2025년 7~10월 전남대병원·화순전 남대병원·KS병원 등에서 시작해 순차 확대한다. 시스템 구축은 10월부터, 응급자원 전수조사는 올 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법적 근거도 갖췄다. 응급의료법과 시행령은 시·도가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광주시 조례는 정책개발·자원조사·전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단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중인 광주 응급의료지원단은 전남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며 2025년 사업비는 4억 원(국비 1억2500만 원, 시비 2억7500만 원)이다.

현장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병원은 전원 채팅으로 수신·추가정보를 주고받고, 카메라·캡처 영상으로 CT 등 영상을 공유한다.

증상·질환별자원표는 요일·시간·주기(예: 3일마다 내시경 가능) 단위로 표시해 "지금 가능한 병원"을 명확히 표시해 준다. 병상 보류·수술 중 알림, 대량환자 발생 시 수용 여력 표시 등 상황판 기능도개선한다.

시는 전원 평균 소요시간 단축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데이터 기반 품질개선을 주요 성과지표 로 삼고, 119 연동 완료 전까지 병원 간 전원 성공 률을 우선 끌어올릴 방침이다.

향후 절차는 시범 운영→모의훈련→표준지침 확정→전면 적용 순으로 진행한다. 병원 내 권한관리와 교육을 병행해 야간·휴일, 동시 다발 중증 발생등 고난도 시나리오 대응력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플랫폼은 기술 못지않게 신뢰가 중요 하다"며 기관별 가용자원 수시 갱신과 표준운영지 칩 준수를 당부했다.

강윤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응급실 과



2년 만에 가림막 철거 ··· 5·18 때 모습 찾아가는 옛 전남도청

13일 오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이 복원 공사를 위해 설치됐던 가림막과 비계를 철거하고 착공 이후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도색 등 추가 시설공사를 거쳐 내년 1월 복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4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옛 전남도청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밀과 전원 지연을 줄여 시민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 받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진과 함께 체계를 완성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20대 3명, 캄보디아 입국 뒤 연락두절

광산구 2·북구 1건 피해 의심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가 운데 광주에서도 동남아로 출국한 20대 3명이 가족 과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3·6면〉 13일 광주 광산경찰과 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산 구 2건, 북구 1건 등 모두 3건의 캄보디아 피해 의

심 사례가 신고됐다.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은 모두 20대로 경찰은 범죄 연관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 \sim 8월$ 인터 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국제공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6건(3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범죄인은 147명이라고 밝혔다. 2021년 18명, 2022 년 26명, 2023년 22명, 2024년 48명으로 급증 추세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3명이 송환됐다.

다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 사건 통계는 외교 부가 관리하고 있어 별도 집계를 하지 않는다고 경 찰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이후 감금을 당했다며 한국 공관에 들어온 신고는 2021 년 4건, 2022년 1건에 머물다 올해 1~8월 330건으 로 급증했다. /유연재기자 yjyou@kwangju.co.kr

산지쌀값 80kg 한 가마 24만원 역대 최고

정부, 10만 톤 우선 격리키로

산지쌀값이 24만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80kg들이 한 가마에 24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농민들이 줄곧 목소리를 높여온 그 가격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밥 한 공기가 쌀 100g 정도인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한 공기에 300원은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껌값', '커피 한 잔값'에도 못미치는데, 비룟값·농자재값·인건비 등폭등한 생산비를 감안하면 최소한 300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농민들 심정이다.

다만, 농민들 바람대로 쌀값이 이대로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가 올해 쌀 10만 t을 시장에서 우선 격리키로 했고 전남도 등 농정당국도 햅쌀 판매가 시작되는 이달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데이처가 파악한 쌀한 포대(80kg)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24만 7952원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 가격이 24만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5년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쌀값은 지난 6월 처음으로 20만원(20만 1703 원)을 넘어서더니 20만 7371원(7월)→ 21만 4917원(8월)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2만 6816 원(9월 25일)까지 올라섰다가 이달 처음 24만원을 돌파했다.

통상 쌀값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상승한다. 2023년에도 9월 25일 20만 808원이던 쌀값은 10월 5일 기준 21만 7552원으로 8.3% 뛰었고 지난해도 17만 4592원(9월 25일)에서 18만 8156원 (10월 5일)으로 7.8% 상승했었다. 올해의 경우지난해쌀 생산량(359만 t)이 전년 대비 12만 t 줄어든데다, 정부가 공공비축미(40만 t), 시장격리(20만 t), 벼멸구 등 피해 벼 매입(2 t) 등으로 62만 t을 매입한 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게 전남도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